

제주도민을 위한 영어교재 개발방향 및 그 활용

변길자

(제주대학교)

Byun, Gil-Ja. (2007).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and use of an English textbook for Jeju residents. *Modern English Education*, 8(1), 112-129.

This paper attempts to suggest a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and use of an English textbook in order to improve the listening and speaking ability of Jeju residents in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Suggestions are made for residents between 30 and 50 years old, who belong to the intermediate level of English proficiency. It is suggested that a communication-oriented textbook should be developed with the following factors in mind: (1) the enhancement of English learners' listening and speaking ability, (2) the inclusion of content about basic English grammar and pronunciation, (3) Jeju-related content about nature, culture, history and tourism, (4) careful selection of words and moderate adjustment of sentence length in consideration of the English learners' level, and (5) the severe mental burden caused to English learners by excessively large textbooks. It is also suggested in this paper how such a textbook could be developed with such guidelines in mind, and how it could be utilized in class. This is done by offering an example lesson and explaining the concepts involved.

Keywords: [English textbook/Jeju Free International City/Jeju-related contents/영어교재 /제주국제자유도시/ 제주관련내용]

1. 서론

나날이 국제화되어가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세계 공통어인 영어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세계 정보물의 85%가 영어로 되어있어서 외국의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각종 자료나 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에 대한 능력을 기르는 일이 필수적인 시대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도가 국제 자유도시가 됨에 따라 제주 도민들의 영어 능력 향상은 앞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여부에 중요한 관건이다. 하지만 어떻게 제주도민들이 영어능력을 향상

변길자

시킬 수 있을지의 방법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필자는 그 구체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제주도민들의 영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그 대상을 제주도민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계속 영어를 배우고 있고 또한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라서 영어를 말하기, 듣기 위주로 공부하고 있어서 일반 제주도민들의 영어능력과는 구별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교재를 활용할 대상을 중급 수준으로 한정하겠다. 필자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제주도민들의 초급수준은 영어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며, 고급수준은 스스로도 영어를 잘하는 학습자들이어서 굳이 고급수준의 학습자들을 위한 교재를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주도민들은 영어를 배우는데 결정적 시기가 지난 30대 이상의 학습자들이므로 교실학습이 매우 중요하다. 교실에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적합한 영어교재를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영어를 제2외국어로 가르치는 우리나라와 같은 환경에서는 영어교육을 할 때 영어교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클 수밖에 없다. 이에 필자는 제주도가 지원했던 도민대상 영어회화를 지도했던 경험과 그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어회화를 지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도민들이 영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영어교재를 만들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제주도민을 위한 영어교재의 개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영어회화나 독해용 영어교재는 시중에 많이 나와 있다. 그리고 제주도민을 위한 영어 회화용 교재도 몇 개가 출판되어 있다. 그러나 전자는 특별히 제주도민의 관심을 끌 내용이 부족하며 후자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완전 초보자용이고 내용 자체도 너무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제주도민의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교재의 내용 면에서는 제주의 관광,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반영하면서도 수준 면에서는 초보자의 수준을 벗어난 제주도민을 위한 교재가 반드시 개발될 필요가 있다.

2.1 영어교재 개발의 이론적 배경

우리나라의 경우 100년이 넘는 긴 영어교육의 역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거쳐 대략 10여 년 동안 영어를 배웠어도 졸업 후 영문으로

된 글을 읽고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하거나 영어화자들의 말을 알아듣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영어교재나 교육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는 데는 소홀히 한 반면 문법-번역식 방법에 너무 치중해서 영어모국어화자보다 문법적인 사항에서는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어서 문법적 설명을 잘 하지만 실제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따라서 과거의 문법-번역식 교육방법이나 교재에서 탈피하여 학습자들의 의사소통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교재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통합한 언어기능에 기반을 둔 의사소통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의 이론적 대세이다. 이런 주장을 한 대표적 학자로는 Stevick(1972), Dougill(1987), Griffiths(1995)를 들 수 있다.

Stevick(1972)은 의사 소통적 영어교재가 지녀야 할 세 가지 자질을 강/약도(strength/weakness), 경/중도(lightness/heaviness), 투명도(transparency/opacity)로 제시하였다: (1)강/약도: 영어교재의 내용, 어휘, 구문수준이 학습자가 의사소통하기에 적합한 정도 (2)경/중도: 문장의 길이나 어려운 발음으로 인해 학습자가 의사소통하기에 어느 정도의 부담감을 지니는가 하는 정도 (3)투명도: 학습자가 교재의 단원간의 관계를 얼마나 쉽게 알 수 있는가 하는 인지적 특성

Dougill(1987)은 의사소통적 영어교재가 지녀야 할 자질을 내용면, 언어 기능면, 학습자의 심리적 요인, 구술적 측면, 동기부여, 목표, 주제, 발음의 설명으로 나누고 있다: (1)의사 소통적 영어교재는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한 교과내용에 응집력이 있어야 한다. (2)의사소통은 듣기와 말하기 중심이어야 한다. 즉, 읽기와 쓰기는 듣기와 말하기를 잘하기 위한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3)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학습자들은 흔히 불안감, 좌절감을 느끼게 되어 부정적인 감정 여과기에 의해 학습을 방해받게 된다. 이러한 측면은 언어학습이 감정적인 요인에 좌우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학습자는 노출된 입력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학습자 내부의 감정상태가 정보수용과정을 수월하게 하기도하고 어렵게도 한다. 이러한 학습자 내부의 감정여과기는 의사소통중심적인 영어교재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학습저해요인이다. 따라서 의사소통중심적인 영어교재에 제시된 영어 자료와 내용은 학습의 흥미를 유도해야 한다. (4) 듣기이해와 말하기 연습은 궁극적인 의사소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름길이다. 따라서 영어교재는 의사소통의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5)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영어교재의 단원이 다양성을 내포해야 한다. 학습의 지루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단원구성의 변화가 필요하다. (6) 의사소통중심적인 영어교과서에서 학습자가 요구하는 의사소통수준의 목표가 어느 정도로 제시되어 있는가하는 문제는 중요하다. 각 단

변길자

원마다 학습자의 의사소통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면 학습자는 각 단원별로 제시된 제한적인 목표를 향해 학습을 할 것이다.(7) 의사소통을 위한 학습내용의 주제가 흥미로워야하며 의사소통위주로 영어권의 문화를 분명하게 학습할 수 있는 주제를 고려해야한다. (8) 영어교재가 학습자에게 이해 가능한 충분한 입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각적으로 학습자에게 동기를 부여해야한다. 이러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활자체나, 삽화, 도표와 같은 교재의 시각화는 중요하다. (9) 학습자의 듣기이해와 말하기 표현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어교재의 원어민 발음은 필수적이다. 학습자는 원어민 발음으로 예문을 학습하도록 하여야한다.

Griffiths(1995)는 성인위주의 영어교재 평가기준을 제시한 논문에서 10가지 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의사소통적 관점에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1) 의사소통적 영어교재가 학습자의 원하는 목적에 부합하는가? (2) 의사소통적 영어교재가 학습자중심인가? (3) 의사소통적 영어교재가 상호 작용적 학습을 용이하게 하는가? (4) 의사소통적 영어교재가 사회-문화적으로 적절한가? (5) 의사소통적 영어교재에서 취급되는 내용이 최근의 것인가? (6) 의사소통적 영어교재에 제시된 어휘와 이해 가능한 입력의 수준이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등급화 되었는가? (7) 의사소통적 영어교재가 학습자의 연령에 적합한가? (8) 의사소통적 영어교재는 흥미가 있고 시각적으로 매력에 있는가? (9) 의사소통적 영어교재가 실생활과 연관성이 있는가? (10) 의사소통적 영어교재가 사용하기 쉬운가?

그러나 이처럼 의사소통능력의 향상 쪽에 역점을 둔 영어교재는 지나치게 듣기, 말하기 위주가 되어 학습자는 구두로 의사소통을 할 능력을 기를 수는 있겠으나 많은 정보를 짧은 시간에 신속히 읽어내는 능력과 글로써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더군다나 외국어으로써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를 염두에 두면 기본적인 문법사실들도 다루어 줌으로써 다양한 문장구성의 원리를 이해하게 하여 능동적인 문장생성능력을 길러주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보아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영어교재는 의사소통능력의 배양은 물론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본적인 문법사실들도 포함해야할 것이다.

2.2 교재내용의 구성방향

영어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하기, 듣기 뿐만 아니라 읽기, 쓰기의 4가지 영역을 골고루 갖춘 통합적 영어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외국어로서 영어를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려면 영어의 기본적인 네 가지 기능을 모두 익힐 필요

가 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영어교재는 영어회화 능력 뿐만 아니라 독해나 듣기 및 쓰기 능력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나의 특정 교재가 영어의 기본적인 네 가지 능력을 모두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구성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되면 개성이 없는 교재가 되어버리는 약점이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제주도민을 위한 교재를 개발함에 있어서 주로 교재내용을 학습자의 말하기 능력의 향상 쪽에 역점을 두되 듣기나 읽기 능력도 어느 정도 배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재를 구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교재를 이용할 대상이 영어의 결정적 시기가 지난 학습자들이므로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영어를 학습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들은 교재에서 배운 상황만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많이 접하게 되므로 어느 상황에서든지 문장을 능동적으로 생성함으로써 상황에 맞는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 교재를 사용할 학습자들의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교재에는 아주 기본적인 문법 설명들도 포함될 것이다. 왜냐하면 쓰거나 읽기에 문법이 필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의사소통을 생산적이고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문법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재에 문법적 내용이 첨가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받아왔던 영어교육방식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이 영어를 배웠던 방식은 문법위주이기 때문에 영어교재 자체가 회화식으로 만 된다면 거부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회화식 교재 위주로 교실에서 게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짝지어서 그룹끼리 한다든지, 박수치고 노래하는 활동에서 영어를 배운다고 생각하지 않고 시간낭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적절한 문법적인 틀에 맞추어서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문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영어를 배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어교재에 문법이 첨가되어야 하는 이유는 필자가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영어회화를 가르쳤을 때에도 나타났다. 일반도민들은 팝송을 통해서 영어듣기나 쉬운 동화를 영어로 말하는 활동보다는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고 싶어해서 문법 배우는 것을 선호했다. 실제 문법을 가르쳐서 문장구성을 연습시키면 학습자들이 접하는 다른 문장이 왜 그렇게 구성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서 신기해하기조차 했다. 또한 영어학습 이론에 근거해서도 제주도민의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영어교재에는 문법이 들어가야 한다.

또한 내용적으로는 교재를 사용할 대상이 제주도민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교재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즉 제주도민의 관심사항을 교재에서 다루어 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고신옥(2003)은 실제 중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주도 특유의 것들

변길자

을 영어수업시간에 가르쳤을 때 학생들의 반응은 일반적인 주제를 가르쳤을 때 보다 더 흥미로웠다고 한다. 또한 그녀는 제주도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동일한 반응이 나타났음을 밝혔으며 그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은 제주도 특유의 것들을 다루는 순위에서 우선 제주도의 관광지, 제주도의 자연, 제주도의 문화, 제주전설 및 민속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을 반영하여 교재내용 또한 의사소통을 위해 누구나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일반적인 내용 이외에 제주에 특유한 역사, 문화, 전통, 자연 및 관광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여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주도민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켜 수업을 좀 더 능률적으로 진행함은 물론 보다 더 큰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제주도민들을 위한 영어교재의 실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영어교재의 틀은 의사소통만을 위주로 한 회화식 교재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문법이 가미되어야 한다. 또한 필자가 가르쳤던 제주도민들의 경우 영어의 4가지 능력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은 듣기이며 그 다음 말하기, 쓰기, 읽기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주도민들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영어듣기에 필요한 음성학적 설명을 교재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기능어와 내용어에 대한 음성학적인 차이라든지 연습에 관한 음성학적 자료를 제시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외에 제주의 고유한 사실을 반영해야 한다. 이를테면 제주의 역사, 관광, 문화 등을 다룸으로써 학습자인 제주도민의 관심을 유발시키고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1 영어교재의 구성

제주도민의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영어교재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은 앞서 Griffiths(1995)가 제시한 것처럼 학습자중심으로 학습자들의 요구와 흥미에 부합되게 만들어져야 한다. 필자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제주도민들의 영어를 공부하는 목적은 외국인들과 만났을 때 불편함 없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교재의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생활영어회화를 다루는 것이 좋

을 것이다.

기본 생활영어회화도 각 주제에 따라서 제주도상황에 맞게 다루어져야 도민들이 영어교재에 더 쉽고 친숙하고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제주도민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요구하는 영어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주도 특유의 관광지 및 자연, 역사, 문화 등을 알아야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제주도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고 흥미로울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중심으로 관련된 자료들을 취급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된다.

이에 필자는 교재의 구성을 영어학습자인 제주도민에게 흥미를 주면서도 제주도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 그리고 관광 등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크게 다섯 개의 부문으로 나누고 또 각 부문에는 다섯 개의 과를 배당하여 총 5개 부문의 25개의 과가 되도록 교재를 구성하였다. 다음이 제주도민을 위한 교재구성의 실제 예이다.

PART I Daily-life English Conversation

- Lesson 1. Introduction
- Lesson 2. Asking for Direction
- Lesson 3. Invitation
- Lesson 4. Shopping
- Lesson 5. Emergency

PART II Jeju Tourism

- Lesson 1. Jungmun Beach
- Lesson 2. Gimnyeongsagul Cave
- Lesson 3. Seongsan Ilchulbong
- Lesson 4. Seungup Folk Village
- Lesson 5. Cheonjiyeon Waterfall

PART III Jeju Culture

- Lesson 1. Jeju Food
- Lesson 2. Tamna Cultural Festival
- Lesson 3. Jeju Natural and Folk Village
- Lesson 4. Gwandeokjeong
- Lesson 5. Jeju Traditional House

번갈자

PART IV Jeju History

- Lesson 1. The Settlement of Jeju People
- Lesson 2. Jeju Folk
- Lesson 3. Jeju Myth
- Lesson 4. Samseounhyeol
- Lesson 5. Hangmong Historical Site

PART V Stone, Wind, Woman

- Lesson 1. Stone
- Lesson 2. Wind
- Lesson 3. Life
- Lesson 4. Mountain Halla
- Lesson 5. Orum

이처럼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영어교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회화 뿐만 아니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알맞은 제주도민의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지역적, 문화적 특성을 취급하는 것이 당연하다. 제주도민이라면 제주도의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영어교재에 제주도민이 관심을 가진 내용을 다루면 학습자는 수업내용에 더 집중할 것이다. 이처럼 제주도 특유의 것들을 영어교재에 다룸으로써 제주도민을 위한 영어교재가 학습자들의 흥미와 기대욕구를 충족시켜주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영어교재는 그 역할을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3.2 교재내용

다음에는 앞장에서 제시된 교재구성에서 각 부문별 교재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PARTⅢ의 한 단원을 예로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PART Ⅲ. Jeju Culture

Lesson 1. Jeju Food

1. Words

roast/ slice/ raw/ duck/ porridge/ delicious/ abalone/ hair-tail/

seafood/ cuttlefish/ pheasant/ buckwheat/ season/ side dishes

2. Getting Ready

- 1) Who has tried Jeju food?
- 2) What kinds of Jeju foods are there?
- 3) What Jeju food would you like to recommend for foreigners?
- 4) Do you think foreigners like to have Jeju foods such as abalone porridge and Charimulhoe?
- 5) Where would you like to go to have Jeju food?

3. Conversation

A foreign tourist and his Korean friends are in a Korean restaurant to have dinner.

A: What kind of food would Korean people like to eat out?

B: They would like to have roasted pork, beef and duck and a sliced raw fish called Hoe when they eat out.

A: I like this porridge. This is very delicious. What's this made from?

B: This is abalone porridge. A lot of tourists like to have this porridge very much when they visit Jeju Island.

A: Where is abalone caught?

B: This abalone is caught in the clean sea Jeju boasts of. Jeju abalone is famous for its taste and quality.

B: I see. Is abalone used for only porridge?

A: No. Jeju people ate raw abalones like raw fish, but now it is very so expensive that it is not easy to eat raw abalones.

A: What kind of food unique to Jeju is there?

B: As you know, Jeju is an island surrounded by the sea. So the food unique to Jeju is mostly cooked with sea products such as abalone porridge, boiled fishes such as Okdom(a kind of fish) and hair-tail and soups like seafood stew called Haemulttukbaegi, sea urchin soup called Songgaeguk, raw seasoned cuttlefish called

번갈자

Hanchimulhoe. In addition, there are local pheasant dishes called Qwongyori and buckwheat cakes called Bingttok.

A: I would like to try some of them while I am staying in Jeju.

B: I hope you will.

4. Questions

- 1) What kind of Jeju food can you make?
- 2)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delicious Jeju food?
- 3) Who has made abalone porridge?
- 4) What do you think is the feature of Jeju food?
- 5) What Jeju food do you usually have?

5. Reading (Jeju Food)

What can we count as the food unique to Jeju? It should include broiled Okdom, a kind of fish, roast of Obunjaki, which is a seafood that belongs to the abalone family, Bingttok, Buckwheat cakes, which is rolled thin pancakes having radish or red beans inside, Hanchimulhoe, raw seasoned cuttlefish in the water, or Jarihoe, raw seasoned fish. The fish is only cleaned and scaled to eat as raw fish. The edible bone is left as it is because it enhances the chewy texture.

6. Listening

What can we count as the food _____ to Jeju? It should _____ broiled Okdom, a kind of _____, roast of Obunjaki, which is a _____ that belongs to the abalone family, Bingttok, Buckwheat cakes, which is _____ thin pancakes having radish or red beans inside, Hanchimulhoe, raw seasoned _____ in the water, or Jarihoe, raw seasoned fish. The fish is only cleaned and scaled to eat as _____ fish. The _____ bone is left as it is because it enhances the _____ texture.

7. Grammar (Interrogatives)

- 1) What kind of food would Korean people like to eat out?
- 2) When is the English conversation class offered?

- 3) What time does the conference start?
- 4) What day of the week is today?
- 5) Where are you going?

8. Pronunciation (Liaison)

- 1) What kind of food would Korean people like to eat out?
- 2) She is in her late thirties
- 3) I'm eating a melon.
- 4) I'm kind of in a hurry.
- 5) Please stand up.

위의 교재내용은 학습자가 중급정도의 영어수준으로 주로 영어회화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문장을 구성하고 내용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수업내내 학습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교재의 단원구성을 다양하게 했으며 전반적인 구성을 주로 묻고 대답하기 위주로 하여 학습자가 수업하는 동안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하고 관심이 딴 곳으로 분산되지 않도록 하는데 유의하면서 내용구성을 하였다.

3.3 효율적 수업진행 방법

여기서는 위에서 제시된 교재를 가지고 제주도민에게 실제로 영어를 가르치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방법모색 차원에서 Part I 의 Lesson 2. Asking for Direction의 내용을 가지고 실제 수업진행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Littlewood(1981)는 의사소통적 접근의 학습방법으로서 의사소통활동준비단계(pre-communicative activities)와 의사소통활동(communicative activities)을 구분하였다. 의사소통활동준비단계란 말 그대로 본격적으로 의사소통활동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전에 준비하는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의사소통활동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할 필수적인 어휘라든지 의사소통활동을 하기 위해 의사소통 활동과 관련된 문제풀이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활동준비단계는 본격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영어교재에서 다루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단원이 방향을 묻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활동준비단계에서 방향을 묻고 말하는데 필수적인 어휘들을 다

변경자

루어야하며 이와 관련해서 본격적인 의사소통활동을 준비하기 위한 문제를 제시해야한다.

1. Words

next to/ between/ behind/ in front of/ on the left(right)/ turn
right(left)/ on the corner/ across from(= opposite)

2. Getting Ready

- 1) Where do you live?
- 2) Are there any tourist attractions near your house?
- 3) Who went to the Jeju Folklore and Natural History Museum?
- 4) Where is the Jeju Folklore and Natural History Museum?
- 5) What was the most impressive thing you saw there?

이러한 준비단계에서 의사소통과 관련된 필수어휘를 익히고 몇 가지 질문을 교사가 제시하고 학생들이 대답한 다음 본격적으로 길 찾기와 관련된 질문을 묻고 대답하는 표현들을 대화를 통해서 학생들이 듣고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재의 내용은 비디오를 검토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비디오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원어민의 발음으로 녹음한 테이프가 있어야 한다. 영어학습에서 시각적 효과나 청각적 효과는 영어학습의 능력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며 학습자들의 발음향상이나 스스로 공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교재내용에 맞는 실제 사진을 실음으로써 학생들이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3. Conversation

A foreign tourist is near the bus stop in front of the Kukmin bank in Jungang-Ro. He talks to a man to go to Jeju Folklore and Natural History Museum.

A: Could you tell me where Jeju Folklore and Natural History Museum is?

B: Sure. It's a little far away from here and so it is not easy for you to walk to it.

A: What is the best way to get there?

- B: It is to take a taxi and tell the driver that you'd like to go to it.
A: How much is a taxi fare to get there?
B: It costs you 1500won as a basic taxi fare.
A: Thank you, but I'd like to get there by bus. I have to spare my money.
B: I see. It is not so difficult to get there by bus. Take a bus here and tell the bus driver KAL hotel.
A: What should I do after getting off the KAL hotel?
B: Take the street by the hotel, not in front of the hotel, and walk to Samsonghyol. You will see the museum there if you see around a little left direction.
A: Thank you so much.
B: You are welcome.

이 대화를 테이프를 통해서 듣고, 학습자끼리 짝지어서 대화를 하게 한다. 그런 다음에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서 학습자들의 경험에 대해 알맞은 대답을 하게 하고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 질문하고 대답을 하도록 하는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영어 듣고 말하기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4. Questions I

- 1) Who has shown foreigners the direction?
- 2) Have you ever been lost in a strange place?
- 3) What do you think is difficult when you explain the direction to foreigners?
- 4) What was the new things you learned about Jeju people's lives after visiting there?

다음에는 길 찾기와 관련된 독해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학습자들의 독해를 돕기 위해서는 준비단계로 독해에 등장하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단어들을 미리 익힐 필요가 있다. 그 방법으로 단순히 단어를 제시하고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다음과 같이 단어를 제시하고 그에 알맞은 정의를 연결시키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번갈자

- | | |
|------------|---|
| A. plant | 1. tools or objects that you use to help you cook |
| B. marine | 2. a living thing that grows in the earth and has a stem, leaves. |
| C. insect | 3. a small animal that has six legs |
| D. mammal | 4. is used to describe things relating to the sea |
| E. utensil | 5. animals such as humans, dogs, lions, and whales |

이런 준비단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길 찾기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지문을 함께 읽고 이해해 나가면 된다.

5. Reading (Jeju Folklore and Natural History Museum)

A foreign tourist is looking for Jeju Folklore and Natural History Museum. He heard that the museum has collected all the folklore, animals and plants in Jeju island. It is said that when a tourist visits it, he can see how Jeju people have lived their lives as well as marine animals, insects, birds, mammals and plants. It displays Jeju people's utensils in their daily life including fishing and farming utensils, clothing and housing. It shows how Jeju people was born, grew, married and died. It is usually recommended for a tourist to visit to take a glance of Jeju people's life. So he would like to visit the museum, but it is not easy to look for the museum because a lot of Jeju people he asked the way to the museum could not speak English.

지문의 내용을 다 읽고 이해하고 난 다음 위의 지문의 내용을 테이프를 통해서 듣고 빈칸을 채워보게 할 수도 있다. 이런 학습활동은 읽기와 듣기를 동시에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6. Listening

A foreign tourist is looking for Jeju Folklore and Natural History Museum. He heard that the museum has collected all _____, animals and _____ in Jeju island. It is said that when a tourist _____ it, he can see _____ Jeju people have lived their _____ as well as _____ animals, _____, birds, mammals and plants. It displays Jeju people's _____ in their daily life including fishing and _____ utensils, clothing and housing. It shows how

제주도민을 위한 영어교재 개발방향 및 그 활용

Jeju people was born, grew, _____ and died. It is usually _____ for a tourist to visit to take a glance of Jeju people's life. So he would like to visit the museum, but it is not easy to look for the museum because a lot of Jeju people he asked _____ to the museum could not speak English.

또한 전반적인 청취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위의 지문을 전반적으로 들려준 후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학습자들에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Answer either TRUE if the sentence you hear is true or FALSE if it is false.

- 1) Jeju Folklore and Natural History Museum is near Samseonghyeol
- 2) Jeju Folklore and Natural History Museum shows Jeju people's utensils in their daily life
- 3) Jeju Folklore and Natural History Museum shouldn't be recommended to visit to take a glance of Jeju people's lives

또한 독해지문과 관련된 내용을 짝끼리 혹은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대화하는 것도 학습자들의 듣기 말하기의 능력을 향상시키며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학습자들의 통합적인 영어능력향상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Questions II

- 1) Who went to the Jeju Folklore and Natural History Museum?
- 2) When did you go there?
- 3) Who did you go there with?
- 4) What was the most impressive thing you saw there?
- 5) What is the new things you learned about Jeju people's lives after your visiting there?

그리고 본 단원에서 주어진 대화 내용 및 독해지문을 참고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필수적인 문법사항들을 정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7. Grammar (Embedded Questions)

- 1) How have Jeju people lived their lives?

변경자

⇒ I don't know how Jeju people have lived their lives.

2) Where is it?

⇒ I know where it is.

3) Who are you?

⇒ I know who you are.

그리고 학습자들의 영어발음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문에 나온 내용을 참고로 하여 영어발음의 특이성과 원칙을 학습시킴으로써 왜 영어가 한국어와 달리 축약과 생략이 자주 일어나는 지에 대한 학습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줄 필요가 있다. 다음과 같은 예를 보자.

8. Pronunciation (Reduced to)

1) I have to spare my money.

2) We go to school

3) They're going to the doctor.

4) I'd love to move to a new city.

5) I plan to get married.

이런 예는 기능어가 왜 발음이 약화되고 거의 우리 귀에 잘 안 들리는지를 설명하기에 아주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본고에서 제시된 교재내용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여기서 제시된 것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며 학습자의 수준이나 관심사 또는 가르치는 교사의 개성에 따라서 위에 제시된 내용을 취사선택하여 적절히 활용하면 될 것이다. 이를테면 학습자가 회화 쪽에 관심이 많으면 대화내용을 좀더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수업시간에 대화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함으로써 교재를 적절히 활용하면 될 것이다.

4. 결론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점점 더 영어를 사용할 기회가 많아지고 외국인과 접할 기회가 많아지리라는 것을 제주도민들은 실감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외국인과 만났을 때 불편함 없이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따라서 필자는 도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영어회화를 가르친 경험과 영어교재를 만드는데 있어서의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알맞게 제주도민들의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재를 개발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여기서는 그 대상을 학생을 배제한 제주도민들에 한하고 그 수준도 중급수준에 제한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계속 영어를 배우고 있고 또한 제7차 교육과정에서 영어를 말하기, 듣기 위주로 공부하고 있어서 일반 제주도민들의 영어능력과는 구별되기 때문이고, 수준을 중급수준에 제한한 것은 필자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제주도민들의 초급수준은 영어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우선 학습자의 원하는 목적에 부합되어야 하는 학습자 중심이어야 하고, 학습자에게 흥미로워야 한다. 따라서 제주도민들의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재는 제주도민들의 영어를 배우는 목적에 부합되어야 하며 흥미로워야 한다. 필자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제주도민들은 외국인들과 만났을 때 불편함 없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기를 원했고 또한 제주도의 특징적인 것들에 대해서 외국인들과 영어로 의사소통하기를 원했다. 그러므로 교재 내용은 주로 제주도과 관련된 역사, 문화, 자연, 관광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제주도민을 위한 영어교재는 과거의 영어교재에서 보여주었던 문법-번역식 형태가 아니라 의사소통 중심으로 교재의 방식을 듣기, 말하기 위주로 편성했다. 또한 제주도민들은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기를 원했으며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문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서 문법을 교재에서 다루었다. 그리고 제주도민들은 영어의 4가지 기술 중에서 듣기를 가장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어로 잘 들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재에 발음에 관한 원칙들도 다루어야 한다.

또한 교재는 영어능력 중급수준의 제주도민들에 한정했기 때문에 그에 맞게 문장의 길이나 어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교재를 만드는데 있어서 유의할 점은 학습자들의 학습의욕을 유발하기 위해서 대화들을 오디오로 녹음하고 대화에 알맞은 실제사진을 첨부해야하며 학습자들이 학습에 대한 중압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책의 분량은 너무 두껍지 않게 단원 30내외가 적합하리라고 생각된다. 그 외 활자 체라든지 책의 구성방식도 학습자들의 학습의욕을 유발할 수 있게끔 영어교재를 만드는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변길자

참고문헌

- 고신옥. (2003).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적합한 영어교재개발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훈. (2002).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영어정책.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언어정책. 제주언어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집.
- 김정희. (2003). 영어학습자를 위한 영어교재개발. *현대영어교육*, 4(2), 77-91.
- 변종민. (2003).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어 인프라구축방안. 고태홍교수 정년 퇴임 기념 논총. 고태홍교수 정년퇴임 기념논총 간행위원회.
- 이재근. (1997). 의사소통능력향상을 위한 영어교재개발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국교육개발원. (1997).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 개발연구. 교육과정개정 연구위원회.
- 현완송. (2002). 영어와 제주국제자유도시. *언어학연구*, 7(2), 267-278.
- Dougill, J. (1987). Not So Obvious. In L.E. Sheldon, *ELT Textbooks and Materials: Problems in Evaluation and Development*, *ELT Document* 126: 29-36. Oxford: Modern English Publications.
- Griffiths, C. (1995). Evaluating Materials for Teaching English to Adult Speakers of Other Languages. *English Teaching Forum* July, 50-51.
- Littlewood, W. (1981).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evick, E. W. (1972). Evaluating and Adapting Language Materials. In Allen & Campbell(eds.),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pp. 101-120). New York: McGraw-Hill Inc.

변길자
제주대학교 영어교육과
제주시 아라1동 1번지
064) 744-5658
byungilja@hanmail.net

논문접수일자: 2007. 2. 27

게재확정일자: 2007. 3. 19